

처음에 비슈 오타카조 관청은 쓰마고주쿠에 있었는데 이나가와에 있던 매 사육장도 통합하여 교호 15년(1730년)에 이곳 야부하라주쿠로 이전했다.

이 구청은 메이지 4년(1871년)에 폐지되기 전까지 존속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‘오타카조’라고 부르는 이곳이 그 터이다.

매년 봄이 되면 오와리번(尾張藩)에서 응사(鷹匠)와 관리가 출장을 왔다.

기소의 다이칸(代官, 지방행정관)인 야마무라 가문의 가신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받으며, 매 등지를 찾고 매의 사육, 훈련, 매의 상납, 스야마(巢山, 매 등지가 있는 산)의 관리 및 순시 등의 활동을 했다.

‘스야마’라 불리던 오스다카야마(御巢鷹山)는 기소 계곡에 60여 곳이 있었는데 기소 강의 상류에 있는 것은, 미소 강의 이케노사와(池ノ沢), 오토사와(尾頭沢)와 사사 강의 오시다시(押出)의 세 곳이다.

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이 지역의 매가 우수하다고 하여, 태어난 어린 매와 함께 매사냥을 즐겼던 오와리 번주를 비롯해 쇼군 가문에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